

광주 아파트 외부인 쪽문 출입금지 '입주민 편의 vs 시민 통행권'

소음·우범지대 우려에 쪽문 보안출입장치 설치 시민들 "도보 시간 2배 더 걸려...통행권 제한"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자 단지 내 쪽문에 보안 출입 장치를 설치한 것을 놓고 입주민과 시민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입주민들은 무분별한 외부인 출입에 따른 소음·우범화 우려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편에선 '부당한 통행권 제한이다'는 불만이 높다.

21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역 모 아파트는 지난 2017년 단지 내 쪽문 4곳을 개방했다가 1년여 지나 외부인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보안 출입 장치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쪽문을 지름길로 이용해

왔던 인근 주민들은 단지 주변을 크게 돌아가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고, 급기야 '해당 아파트 쪽문 증축이 합법인지 살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관할 행정청인 동구는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쪽문이 구정 승인을 받지 않고 증축을 했다고 판단, 지난달 15일 해당 아파트에 '쪽문 폐쇄' 조치를 내렸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는 쪽문 증축 관련 인·허가 서류를 동구에 제출, 전날 승인을 받았다.

대표회의 측은 쪽문에 다시 미닫이문, 인터폰 등 보안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보안 시설 설치가 마무리되면 인근 주민의 아파트 내 통행은 다

시 제한된다.

아파트 측은 사유지인 만큼 출입 제한·범죄와 소음 차단 목적을 위해 보안시설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입주민 안모(71)씨는 "쪽문 개방으로 출입이 용이하자 외부인들이 종종 정자에서 밤부터 아침까지 술을 마셨다. 취객의 노상 방뇨와 쓰레기 투기도 이어졌다. 일부 출입문을 폐쇄해 주민 피해를 차단하고 혹시 모를 범죄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입주민 한모(43·여)씨는 "남의 대문을 드나드는 격"이라며 "입주민 관리비로 아파트 단지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반 시민은 통행 제한에 따른 불편이 크다고 토로한다.

아파트 인근에서 20여년간 거주한 안모(29·여)씨는 "쪽문을 통해 아파

트를 대각선으로 가로 지르면 통행시간이 확연히 줄어든다. 보안 출입 장치가 생긴 뒤 아파트 단지를 크게 돌아가고 있어 불편하다. 전통시장과 인접, 통행량이 많은 만큼 쪽문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모(16·여)양은 "쪽문은 통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대다수다. 아파트를 찾아 쓰레기 투기와 소음 발생하는 야기하는 것이 외부인이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불신 사회'를 방증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 김모(53)씨는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흉흉한 세상인 만큼 입주민 우려도 이해는 하지만, 외부인 모두를 피해 끼치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아쉽다. 쪽문의 보안장치는 우리 사회의 이웃에 대한 불신과 벽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동구 관계자는 "아파트 쪽문 증축



19일 오후 광주 동구 한 아파트 쪽문에 보안시설 사용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지만, 현제 쪽문 보안장치 설치에 대한 규정은 없다. 보안장치 설치 여부는 아파트의 재량이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난민신청 접수 거부 위법확인소송 선고 기자회견 난민인권네트워크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난민신청 접수 거부 위법확인소송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외국인, 배달기사에 덜미

면허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달아난 외국인이 이륜차 배달기사들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1일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주차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투르크메니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이면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갓길 주차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때마침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이륜차 배달 기사들이 달아나는 A씨의 차량을 뒤쫓은 끝에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최이슬 기자

화이자 백신 접종 나흘 뒤 숨진 60대 '사인 불분명'

"지병인 간 질환 의한 사망 가능성 있으나 단정 못해" 백신 접종·사망간 연관성 규명 안 돼...정밀 부검 예정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60대 재할 보호 대상자와 관련해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21일 광주시·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지 나흘 만에 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광

주 북구 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숨지기 나흘 전인 지난 15일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화이자)을 접종했다.

간 질환·파킨슨병 등 지병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지역 모 재활주간보호 센터를 오가는 '요양복지시설 이용자'로서 접종 대상이었다.

국과수는 A씨가 간 질환에 의해 사망할 수도 있으나 사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고, 현재로서는 접종한 백신 약물

과 사망 간의 상관 관계를 규명할 수 없다고 봤다.

국과수는 백신이 사망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약물 반응 등 정밀 부검에 나선다. 최종적인 부검결과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2개월 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 통보와 무관하게 범의 연루 가능성이 낮고 유족 조사를 마친 만큼, 조만간 변사 사건을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추후 국과수로부터 부검 결과보고서를 받는 대로 방역당국에 통보한다.
서선옥 기자

이별 통보한 여성 집 찾아가 흥기 난동 50대 징역 7년

전 동거녀 가족 3명에게 흥기 휘둘러

자신과 동거했던 여성이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가족에게 흥기를 휘둘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9시 50분께 자신과 동거했던 여성 B씨가

사는 전남 화순군 주택을 찾아가 B씨의 친 여동생 2명과 동생 남편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찢린 여동생 1명이 크게 다쳤고, 다른 2명도 팔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이별 통보 뒤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흥기를 준비해 B씨의 자택을 찾아가'는 혐의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격분한 A씨를 보고 뒤채로 피해 화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만나지 못하자 행패를 부리다 가족에게 해코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흥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